

## 메탄의 산화성 짹지음 반응에 관한 연구

김 상 범 · 함 현 식

명지대학교 공과대학 화학공학과

### Oxidative Coupling Reaction of Methane

Kim, Sang-Bum · Hahm, Hyun-Sik

\*Dept. of Chemical Engineering, Myong Ji University, Yongin, Korea

(Received March, 12, 1996)

#### ABSTRACT

This study was conducted to find a catalyst system which has high conversion and selectivity for the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 to produce ethane and ethylene. Various catalysts were tested in a fixed bed reactor at 750°C, 1 atm, and the feed ratio( $\text{CH}_4/\text{O}_2$ ) of 2/1. Under the reaction condition, 10wt%  $\text{PbSO}_4/\text{MgO}$  catalyst showed the highest catalytic activity: methane conversion,  $\text{C}_2$  selectivity and yield were 50, 40 and 20%, respectively. Catalysts containing sulfate compounds, 10wt%  $\text{PbSO}_4/\text{MgO}$ , 10wt%  $\text{MgSO}_4/\text{MgO}$  and  $\text{Na}_2\text{SO}_4/\text{MgO}$  revealed a moderate methane conversions such as 38, 50 and 50%, respectively and low  $\text{C}_2$  selectivities such as 18, 5 and 9%, respectively. Catalysts containing carbonate compounds, 10wt%  $\text{PbCO}_3/\text{MgO}$ , 10wt%  $\text{Li}_2\text{CO}_3/\text{MgO}$  and  $\text{NaCO}_3/\text{MgO}$ , also showed a moderate methane conversions such as 64, 44 and 51%, respectively and low  $\text{C}_2$  selectivities such as 5, 6 and 2%, respectively. With the existence of chlorine and mercury,  $\text{C}_2$  selectivity was decreased.

#### I. 서 론

천연가스의 약 90%는 메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풍부한 천연자원인 메탄의 효과적인 이용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.<sup>1~3)</sup> 따라서 풍부한 자원인 메탄을 이용하여 고부가 가치의 화학원료 등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촉매 분야에서 해결해야 할 큰 연구과제 중 하나이다.<sup>4)</sup>

메탄은 안정한 탄화수소로서 에탄 및 에틸렌으로의 전환은 흡열과정이다. 메탄으로부터 에탄 및 에틸렌을 생산하기 위해서 메탄으로부터 직접 수소를 떼어내는

과정은  $\Delta G^\circ$ 가 양의 값으로서 열역학적으로 불리한 반면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하는 반응, 즉 메탄의 산화성 짹지음 반응(OCM, oxidative coupling of methane)은  $\Delta G^\circ$ 가 음의 값이어서 열역학적으로 유리하다.<sup>3)</sup> 그러나 산소를 산화제로 이용을 할 경우 완전산화에 의하여  $\text{CO}_2$ 와  $\text{H}_2\text{O}$ 가 생성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. 따라서 완전산화를 억제하고  $\text{C}_2$  탄화수소 쪽으로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촉매의 선택과 설계가 연구의 중요한 과제이다.

본 연구에서는 풍부하게 존재하는 메탄을 이용하여 연료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에틸렌과 에탄을 제조하는데 있어서 촉매의 선택도와 전환율을 높일 수 있는

촉매개발을 위하여 OCM 반응을 수행하였다. 이와 관련된 문헌들을 살펴보면, Keller와 Bhasin<sup>5)</sup>이 two oxidation state를 갖는 금속 산화물들이 OCM 반응에 유리하다고 발표하였다. 그 보고에 의하면 온도에 따른 금속의 oxidation state 변화에 의한 표준 Gibbs 자유에너지 변화를 조사한 결과 Pb, Mn, Ba, Cu, V 등이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발표했다. 이 환원성 금속 산화물 중 Pb와 Mn을 촉매로 선택하여 알카리 토금 속에 담지시킨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. 지금까지 보고된 논문을 보면 산성보다는 염기성 촉매에서 좋은 결과들이 보고되었다.<sup>3, 6, 7)</sup> 따라서 지금까지 연구가 전무한 염기성을 갖고 있는 sulfate 화합물과 carbonate 화합물이 OCM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, 촉매 표면에서 carbene( $\text{CH}_2:$ )끼리의 반응에 의해서도  $\text{C}_2$  화합물이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에서 carbene 형성에 도움을 주는 화합물 중 수은 화합물을 택하여 조촉매로써의 영향을 관찰하였고,<sup>8)</sup> Otsuka<sup>9)</sup>에 의하면 chlorine을 첨가하였을 때  $\text{C}_2$ 선택도의 향상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. 따라서 chlorine 첨가에 따른 촉매의 활성변화를 조사하였다.

## II. 재료 및 방법

### 1. 촉매 제조

촉매용 시약 및 가스들은 각각 PbO(Junsei, 98%), BaO<sub>2</sub>(Kanto, 98%), CaO(Junsei, 98%), MgO(Duksan, 98%), MnO(Duksan, 98%), PbSO<sub>4</sub>(Junsei, 99%), MgSO<sub>4</sub>(Shinyo, 99.5%), Na<sub>2</sub>SO<sub>4</sub>(Duksan, 99%), PbCO<sub>3</sub>(Mallinckrodt, 98%), Li<sub>2</sub>CO<sub>3</sub>(Yakuri 98%), Na<sub>2</sub>CO<sub>3</sub>(Shimak-yu, 99%), HgO(BDH, 99%), NaCl(Duksan, 99.5%), He(99.9999%), O<sub>2</sub>(99.9999%), CH<sub>4</sub>(99.9999%)를 사용하였다. 본 실험에서 사용된 촉매의 조성에 대한 자료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. 실험에 사용한 모든 촉매의 제조는 excess water 방식을 사용하였는데 담지시키고자 하는 시약을 각각 넣고자 하는 wt%를 계산하고 순도를 고려한 양을 500mL의 물에 녹인 후에 담체를 넣고 교반하여 담지시킨 후, 중탕으로 물을 건조시키고 200mL의 증류수로 세척한 후에 전기로에서 110~120°C로 12시간 동안 건조하였다. 건조된 촉매를 막자

사발로 grinding시키고 sieve를 이용하여 40/50mesh의 촉매만을 선별하여 실리카겔이 들어있는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.

### 2. 실험 장치

실험장치의 개략적인 도면을 Fig. 1에 나타내었다. 반응기는 고정층 반응기(packed bed reactor)로 길이가 60cm, 지름이 10mm인 석영관을 사용하였으며, 촉매층은 상하에 유리섬유를 채워서 고정시켰다. 반응기의 온도는 비례제어형 온도 조절기를 사용하여 제어하였고, 그 오차는 ±1°C였다. 각 가스의 유입 압력은 2기압으로 유지시키고, 각 가스의 유속은 볼유량계(ball flowmeter)를 사용하여 조절하였고, 전체 유속을 조절하기 위해 희석기체(dilute gas)로 He을 사용하였다. 전체 유속의 보정을 위해 반응기 출구에 비누거품 유량계(bubble flowmeter)를 설치하였다. 생성물 중 물을 제거하기 위해 sampling valve와 반응기 사이에 실리카겔(silica gel blue, Junsei Chem.)을 충진한 moisture trap을 설치하였다.

### 3. 실험방법 및 분석

촉매 1g을 반응기에 채운 후 반응기 외벽에 thermocouple을 고정시켰다. 원하는 반응온도까지 상승시키면서 He을 20mL/min의 유속으로 흘려보내어 촉매를 건조시키고, 촉매의 활성을 높여 주기 위하여 반응온도에서 O<sub>2</sub>를 20mL/min와 He을 10mL/min의 유속으로 동시에 흘려주면서 1시간 동안 촉매를 소성시켰다. 각 실험마다 반응물 혼합비는 CH<sub>4</sub>:O<sub>2</sub>가 2:1이였으며, 전체 유속을 보정하여 53mL/min으로 유지시켰다. 모든 실험은 1atm에서 실시하였고, 반응온도는 750°C였으며 촉매의 활성 정도에 따라 10~30회 정도 분석을 실시하였다. 반응물 및 생성물의 분석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(Shimazu GC-8A)를 이용하였고 칼럼은 carbosphere, detector는 TCD였다.

## III. 결과 및 고찰

### 1. 각 촉매에 대한 메탄의 전환율, $\text{C}_2$ 선택도 및 수율

현재까지의 OCM 반응 연구에서 좋은 결과를 보인

$\text{BaO}_2$ ,  $\text{CaO}$ 와  $\text{MgO}$ 를 담체로 택하고, two oxidation state를 갖는 환원성 금속 산화물 중  $\text{Pb}$ 와  $\text{Mn}$ 을 택하여 담지시키고, OCM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. 세 담체에  $\text{Pb}$ 를 담지시켰을 때의 결과를 Fig. 2에

나타내었다. 이때  $\text{Pb}/\text{BaO}_2$  촉매의 경우 전환율이 40%이고 선택도가 47%로 나타났다. 반응 초기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환율은 안정적이었으나, 반응시간이 24시간이 되었을 때 급격히 감소함을 알 수 있고,

Table 1. The compositions of catalysts

Catalysts	Preparation methods	wt%	Precursor chemicals
$\text{Pb}/\text{BaO}_2$	Excess water	10:90	$\text{PbO}(\text{junsei}, 98\%)$ $\text{BaO}_2(\text{Kanto}, 98\%)$
$\text{Pb}/\text{CaO}$	"	"	$\text{PbO}(\text{Junsei}, 98\%)$ $\text{CaO}(\text{Junsei}, 98\%)$
$\text{Pb}/\text{MgO}$	"	"	$\text{PbO}(\text{Junsei}, 98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Mn}/\text{BaO}_2$	"	"	$\text{MnO}(\text{Duksan}, 98\%)$ $\text{BaO}_2(\text{Kanto}, 98\%)$
$\text{Mn}/\text{CaO}$	"	"	$\text{MnO}(\text{Duksan}, 98\%)$ $\text{CaO}(\text{Junsei}, 98\%)$
$\text{Mn}/\text{MgO}$	"	"	$\text{MnO}(\text{Duksan}, 98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PbSO}_4/\text{MgO}$	"	"	$\text{PbSO}_4(\text{Junsei}, 99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MaSO}_4/\text{MgO}$	"	"	$\text{MgSO}_4(\text{Shinyo}, 99.5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Na}_2\text{SO}_4/\text{MaO}$	"	"	$\text{Na}_2\text{SO}_4(\text{Duksan}, 99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PbCO}_3/\text{MgO}$	"	"	$\text{PbCO}_3(\text{Mallinckrodt}, 98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Li}_2\text{CO}_3/\text{MgO}$	"	"	$\text{Li}_2\text{CO}_3(\text{Yakuri}, 98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Na}_2\text{CO}_3/\text{MgO}$	"	"	$\text{Na}_2\text{CO}_3(\text{Shimakyu}, 99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Hg}/\text{Pb}/\text{MgO}$	"	10:10:80	$\text{HgO}(\text{BDH}, 99\%)$
		20:10:70	$\text{PbO}(\text{Junsei}, 98\%)$
		30:10:60	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$\text{Pb}/\text{NaCl}/\text{MgO}$	"	10:10:80	$\text{PbO}(\text{Junsei}, 98\%)$ $\text{NaCl}(\text{Duksan}, 99.5\%)$ $\text{MgO}(\text{Duksan}, 98\%)$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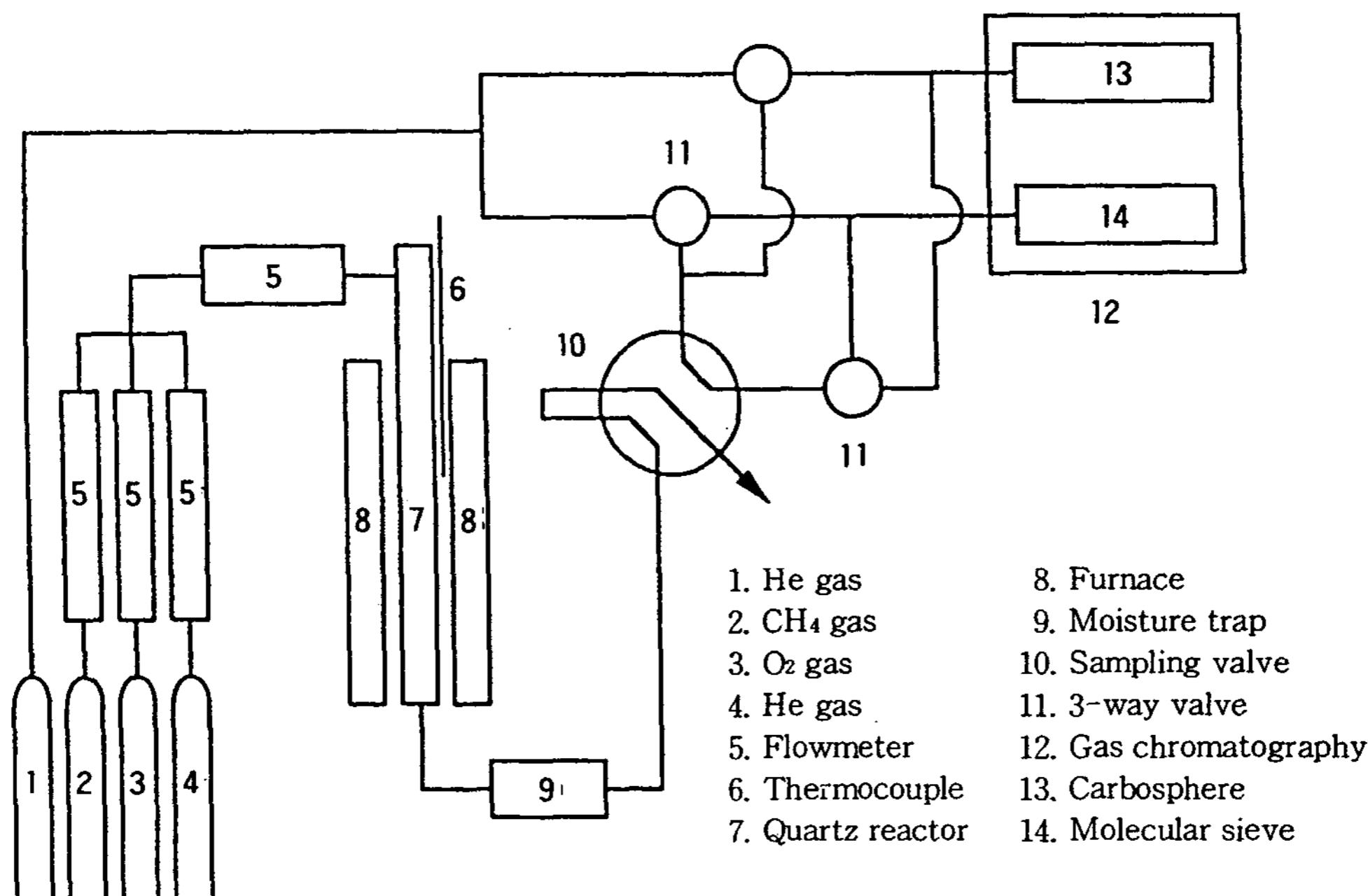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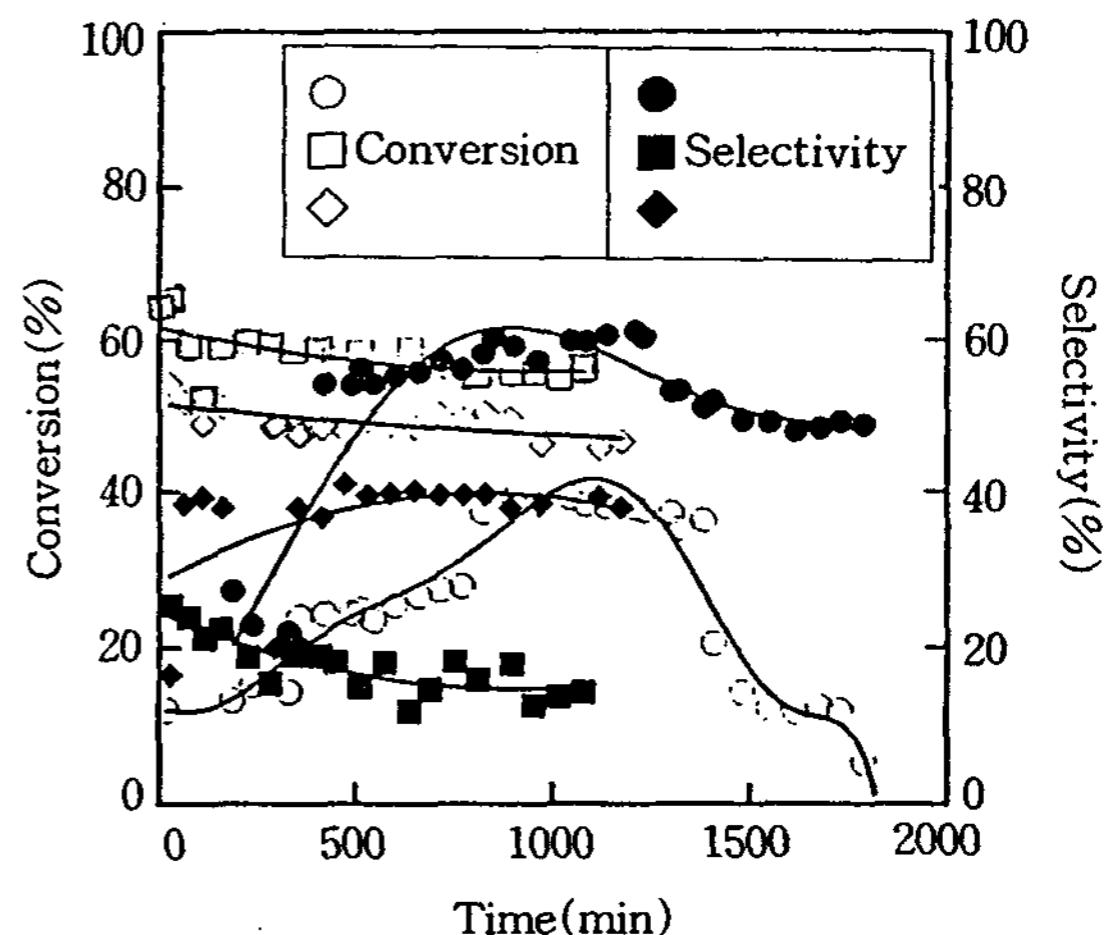


Fig. 1.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.

선택도는 시간이 지나도 그다지 감소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. Pb/CaO 촉매의 경우는 전환율이 57%이고 선택도가 18% 정도 유지함을 볼 수 있는데, 전환율은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나 선택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. 활성은 시간이 흘러도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면을 보여 주고 있다. Pb/MgO 촉매의 경우는 전환율 50%에 선택도가 40%로 나타났으며, 세 촉매 중 가장 안정적인 촉매 활성을 보여주고 있다.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, 세 촉매 중에서 Pb/MgO가 가장 높은 반응성을 보여주고 있다. 수율에 있어서는 Fig. 3에서 볼 수 있듯이 Pb/MgO 촉매가 20%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, Pb/CaO 촉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여 8%를 유지하고 있으며, Pb/BaO<sub>2</sub>가 반응 중간에 22%까지 상승하였지만 종반부에서는 5%로 급격히 감소함을 볼 수 있다.

Pb 대신 Mn을 담지시킨 결과는 Fig. 4에 나타내었다. 이 경우를 보면, Mn 역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. Mn/BaO<sub>2</sub>를 보면 전환율이 22%이고 선택도가 34%임을 볼 수 있고, Mn/CaO는 전환율이 46%이고 선택도가 15%이며, Mn/MgO 경우

Fig. 2. Conversion and selectivity over various catalysts at 750°C : 10wt%Pb/BaO<sub>2</sub>(○, ●), 10wt%Pb/CaO(□, ■), 10wt%Pb/MgO(◇, ◆).

는 전환율과 선택도가 각각 50%와 22%임을 알 수 있다. Mn/CaO와 Mn/MgO 경우의 선택도가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고, Mn/BaO<sub>2</sub> 경우는 선택도가 감소하다가 안정을 찾음을 볼 수 있다. Pb 경우와 마찬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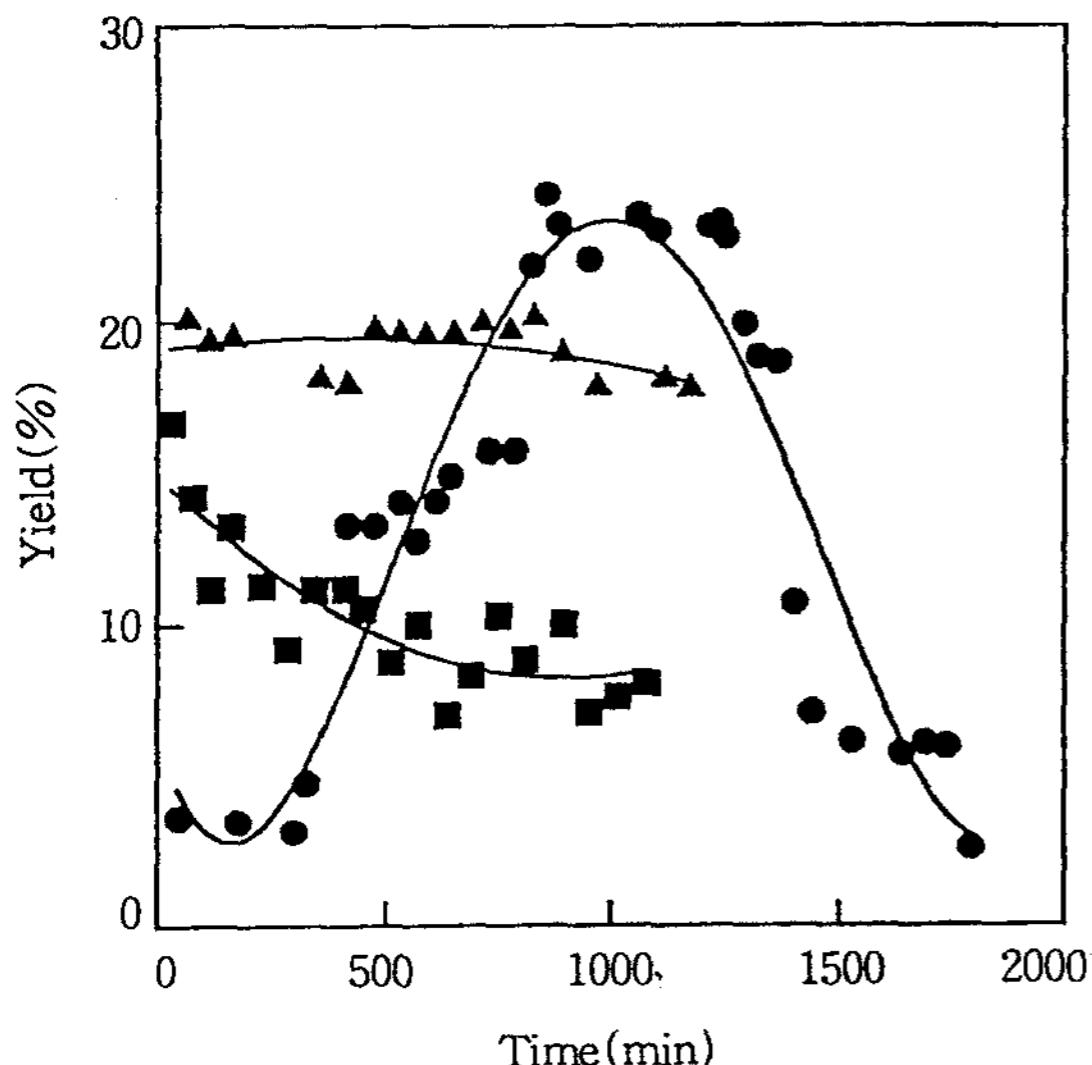


Fig. 3. Comparison of yield for catalysts at 750°C : 10 wt%Pb/BaO<sub>2</sub>(●), 10 wt%Pb/CaO(■), 10 wt%Pb/MgO(▲).

지로 Mn/MgO가 가장 안정적이고 좋은 결과를 보여 줄 수 있다. Fig. 5에 나타낸 수율은 세 가지 촉매 모두 초기보다 감소하다가 점차 안정하게 유지함을 볼 수 있고, Mn/BaO<sub>2</sub>, Mn/CaO, Mn/MgO의 경우 수율이 각각 7%, 8%, 10%였다. Mn/MgO 경우가 Pb/MgO 경우보다 수율이 9% 감소하였는데, 이처럼 two oxidation state를 갖는 환원성 금속 산화물 중 Pb, Mn이 OCM 반응에 유리하다고 보고된 바 있지만 본 실험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였고, Mn보다 Pb가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은 Baerns<sup>10)</sup>의 연구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Pb를 사용한 촉매 표면의 산성도가 Mn을 사용한 촉매보다 낮아서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측된다.

## 2. Sulfate 화합물 사용시 OCM 반응에 미치는 영향

OCM 반응에 주로 연구된 촉매들은 oxide나 nitrate 화합물이 주로 사용되어졌다. 본 연구에서는 그간 연구되지 않은 sulfate 화합물을 이용해서 OCM 반응을 수행해 보았다. OCM 반응은 산성 촉매보다는 염기성 촉매에서 반응이 우수하게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.<sup>3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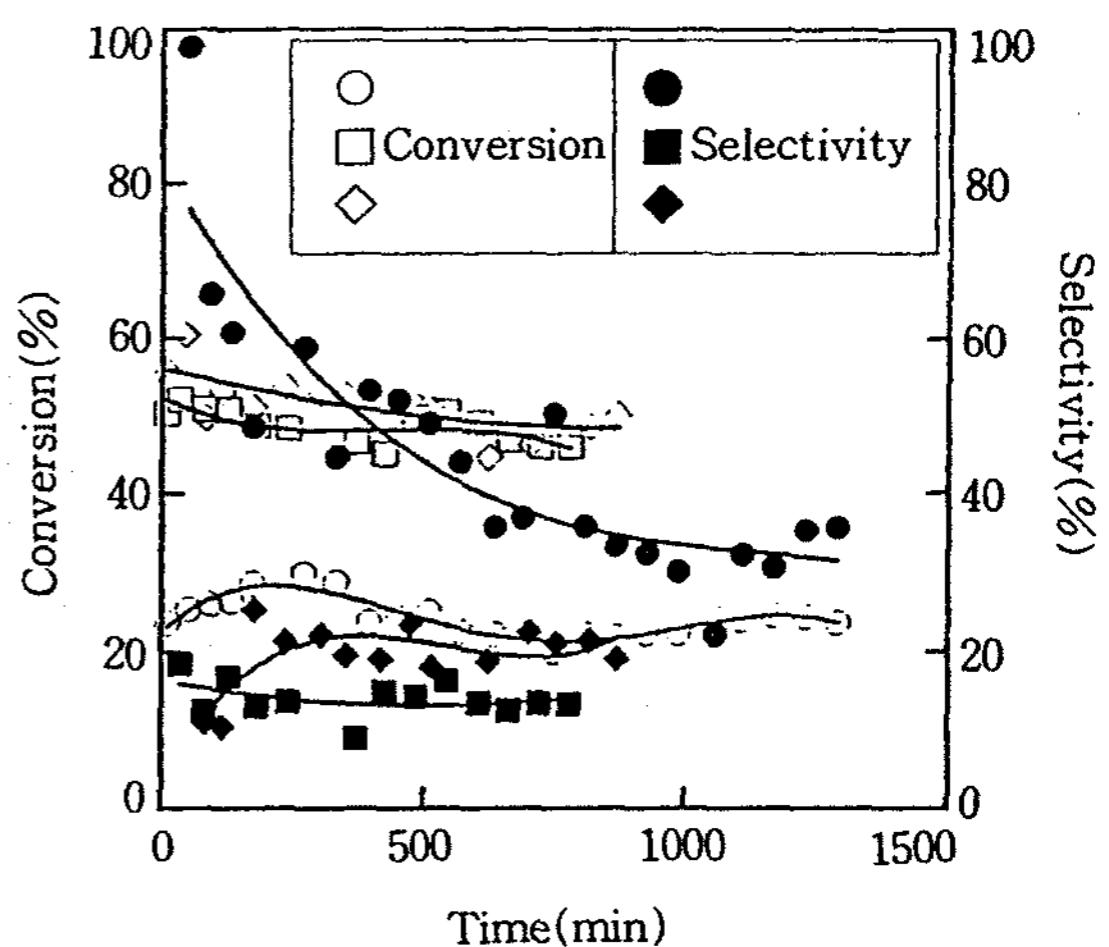


Fig. 4. Conversion and selectivity over various catalysts at 750°C : 10wt%Mn / BaO<sub>2</sub>(○, ●), 10wt%Mn / CaO(□, ■), 10wt%Mn / MgO(◇, ◆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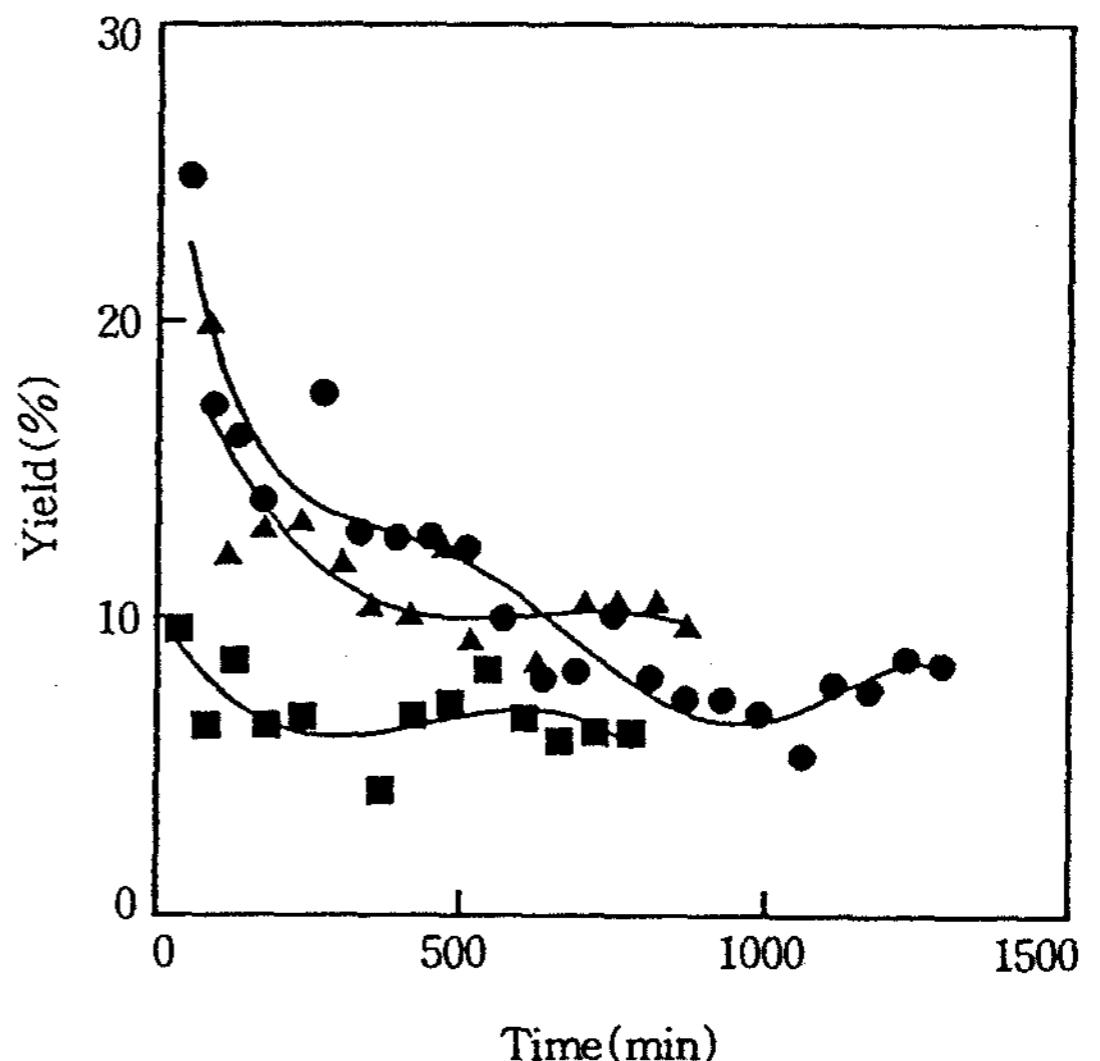


Fig. 5. Comparison of yields for various catalysts at 750°C : 10wt%Mn / BaO<sub>2</sub>(●), 10wt%Mn / CaO(■), 10wt%Mn / MgO(▲).

<sup>5, 7)</sup> Metal sulfate 화합물들은 내부에 표면산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, 적절한 물리적 처리 후에 고체산이 된다.<sup>11)</sup> 이처럼 산점을 가지고 있지 않은 sulfate 화합물이 OCM 반응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어 지금까지 OCM 반응에 좋은 결과를 보여준 것 중에서 Na, Mg,

Pb의 sulfate 화합물을 MgO에 담지시켜 촉매로 사용하였으며, 그 결과를 Fig. 6에 나타내었다. 이 경우를 보면,  $\text{Na}_2\text{SO}_4/\text{MgO}$ 의 경우 메탄의 전환율이 52%이고  $\text{C}_2$  선택도가 8% 정도임을 알 수 있다.  $\text{MgSO}_4/\text{MgO}$ 의 경우 메탄의 전환율이 50%에  $\text{C}_2$  선택도가 5% 정도이며  $\text{PbSO}_4/\text{MgO}$ 는 메탄의 전환율이 38%에  $\text{C}_2$  선택도가 18%임을 보여준다. 이 결과를 보면 대체적으로 세 촉매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인 촉매 활성을 보여주고 있지만  $\text{Na}, \text{Mg}, \text{Pb}$ 가 OCM 반응에 우수한 촉매로 알려져 있음에도 sulfate 화합물을 사용했을 때, OCM 반응에 그다지 유리하지 못한 촉매임을 알 수 있었다. 메탄의 전환율은 우수하였으나,  $\text{C}_2$  선택도가 별로 높지 않음을 볼 때, 원하는 생성물이 아닌 완전 산화에 의한  $\text{CO}, \text{CO}_2$  쪽으로의 반응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. 그러나  $\text{PbSO}_4/\text{MgO}$ 의 경우 두 촉매와 비교시 선택도가 18%로 2~3배 높은 것으로 보아 결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지만, 지금까지의 연구에서 보고되었듯이 Pb는 OCM 반응에 유리하여 두 촉매보다  $\text{C}_2$  선택도가 높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.

### 3. Carbonate 화합물 사용시 OCM 반응에 미치는 영향

본 연구에서 OCM 반응에 유리한 촉매로 알려져 있는 것들 중에서 carbonate 화합물을 사용하였을 때 OCM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. Carbonate 화합물은 염기성으로써,<sup>11)</sup> OCM 반응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촉매이다. Carbonate 화합물 중에서 좋은 촉매로 알려진 Na, Pb, Li의 carbonate 화합물을 사용하여 얻어진 결과를 Fig. 7에 나타내었다. 결과를 보면  $\text{Na}_2\text{CO}_3/\text{MgO}$  촉매는 메탄의 전환율이 54%,  $\text{C}_2$  선택도가 4%이고  $\text{PbCO}_3/\text{MgO}$ 의 경우는 메탄의 전환율이 64%에  $\text{C}_2$  선택도가 4%이며,  $\text{Li}_2\text{CO}_3/\text{MgO}$ 의 메탄의 전환율과  $\text{C}_2$  선택도가 각각 45%와 3%로 나타났다.  $\text{Na}_2\text{CO}_3/\text{MgO}$  촉매가 세 촉매 중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장 안정적인 촉매 활성을 보여주고 있으며, 나머지 두 촉매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촉매 활성이 감소함을 보여준다. Sulfate 화합물 사용 시 보다는 메탄의 전환율이 증가되었으나,  $\text{C}_2$  선택도는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그 차이는 그다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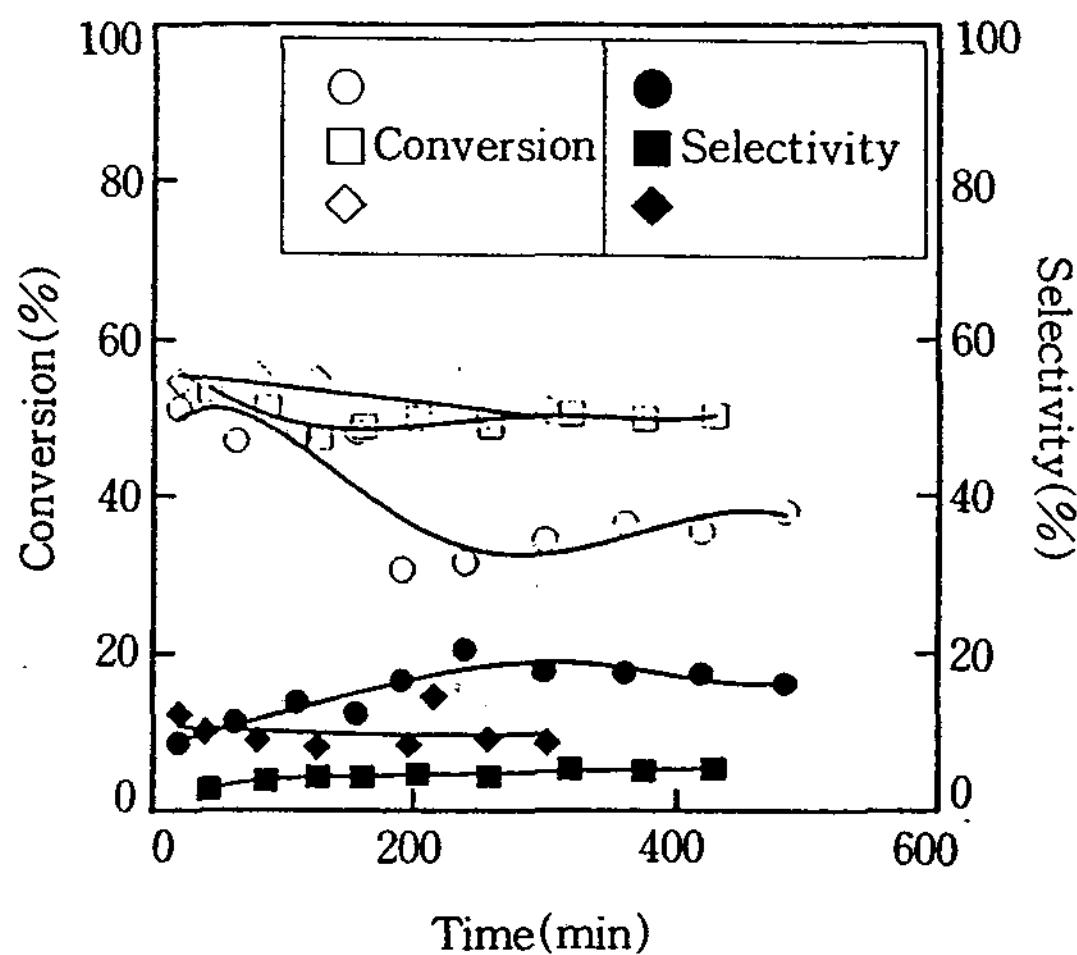


Fig. 6. Conversion and selectivity over various catalysts at 750°C : 10wt% $\text{PbSO}_4/\text{MgO}$ (○, ●), 10wt% $\text{MgSO}_4/\text{MgO}$ (□, ■), 10wt% $\text{Na}_2\text{SO}_4/\text{MgO}$ (◇, ◆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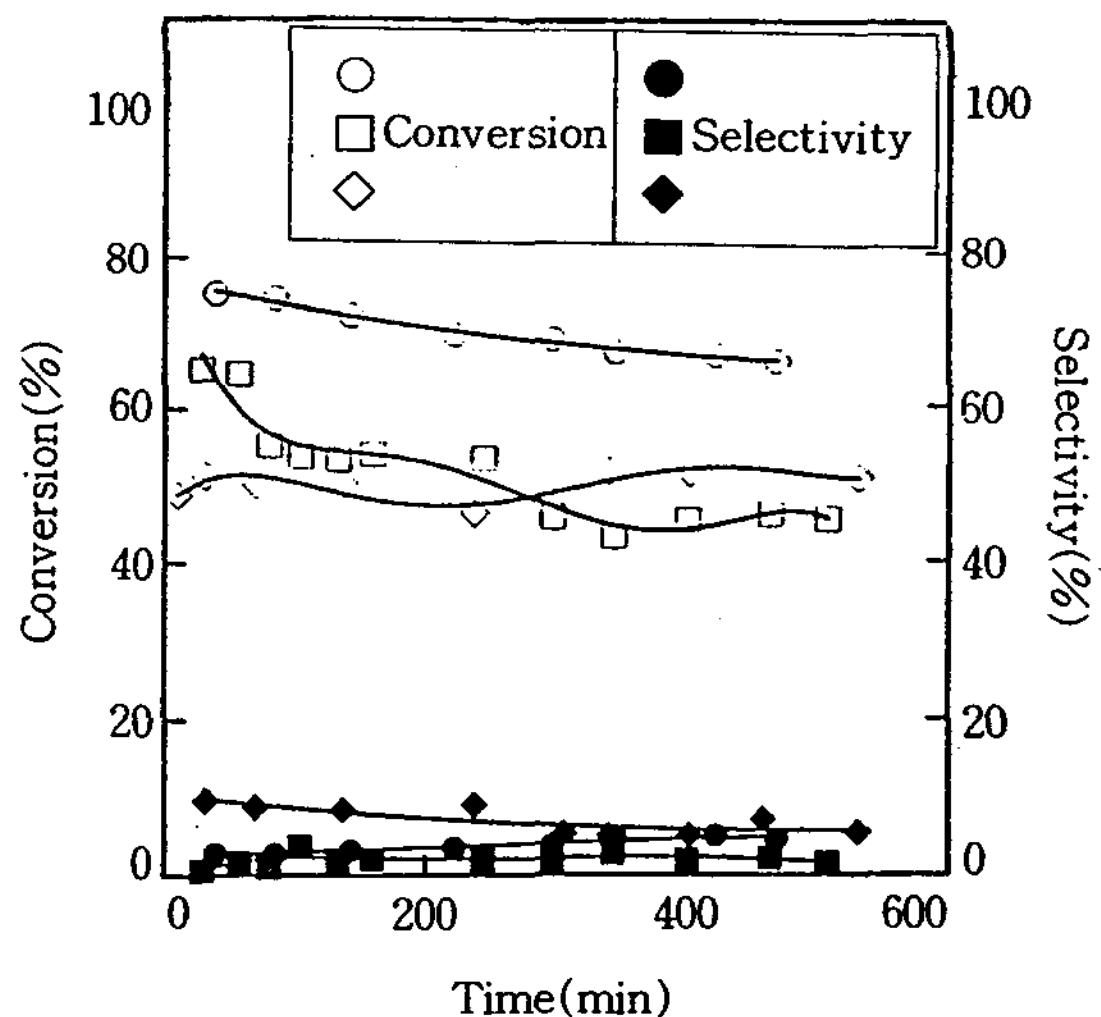


Fig. 7. Conversion and selectivity over various catalysts at 750°C : 10wt% $\text{PbCO}_3/\text{MgO}$ (○, ●), 10wt% $\text{Li}_2\text{CO}_3/\text{MgO}$ (□, ■), 10wt% $\text{Na}_2\text{CO}_3/\text{MgO}$ (◇, ◆).

크지 않고, sulfate 화합물과 마찬가지로 완전산화에 의해 불필요한  $\text{CO}, \text{CO}_2$ 가 많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. Carbonate 화합물이 염기성이라서 OCM 반응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, 그 결과는 그다지

좋지 못한 것으로 보아 carbonate 화합물 역시 OCM 반응에 적절하지 못한 촉매임을 알 수 있었다.

#### 4. Chlorine 및 수은 화합물의 영향

메탄으로부터  $C_2$  화합물이 되기 위해서는 proton abstraction이 중요하다. 할로겐 화합물은 proton abstraction ability를 가지고 있다.<sup>8)</sup> Otsuka<sup>12)</sup>는 염소가 존재할 때  $C_2$  화합물로의 선택도가 증가한다고 발표했다. 또한 생성물 중 에틸렌은 에탄의 탈수소화 반응에 의해서 생성될 수도 있겠지만 만일, 촉매 표면에서 carbene( $CH_2:$ )이 생성된다면 이 carbene들 간의 반응에 의해서도 생성될 가능성은 있다. 따라서 carbene 형성에 도움을 주는 화합물<sup>8)</sup> 중 수은 화합물을 첨가하여 OCM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와 chlorine 화합물을 첨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Fig. 8~9에 나타내었다. 수은 화합물을 첨가하였을 때의 결과는 Fig. 8에 나타내었다. 이 경우를 보면, 수은 화합물의 조성비를 10, 20, 30wt%로 변화를 주어가며 영향을 조사하였는데 Pb/MgO의 경우 전환율, 선택도, 수율이 각각 50, 40, 20%이었으나, Hg/Pb/MgO 촉매의 경우 조성비를 달리했을 때의 전환율, 선택도, 수율이 각각 56, 21, 10%(10wt% 첨가시), 41, 23, 12%(20wt% 첨가시) 그리고 40, 23, 9%(30wt% 첨가시)였다. 이 결과를 보면 수은 화합물을 첨가하였을 때 오히려  $C_2$  선택도가 모두 감소하였다. 전환율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, 안정적인 촉매활성을 보여 주고 있다. 수은 화합물을 사용하였을 때 OCM 반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도 확실한 반응메카니즘이 규명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메카니즘 규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,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수은 화합물이 에틸렌을 생성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carbene의 생성에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측된다.

Chlorine을 첨가하였을 때의 결과를 살펴보면, Pb/MgO 촉매에 NaCl을 첨가한 경우 Pb/MgO의 전환율과 선택도가 Fig. 9에서 보듯이 각각 50%와 40% 이었으나, Pb/NaCl/MgO 촉매는 전환율 41%, 선택도 28%로 모두 감소하였고, 수율은 10%였다. 또한 촉매활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함을 보여주었다. Chlorine 첨가가 본 연구에서는 그다지 좋은 영향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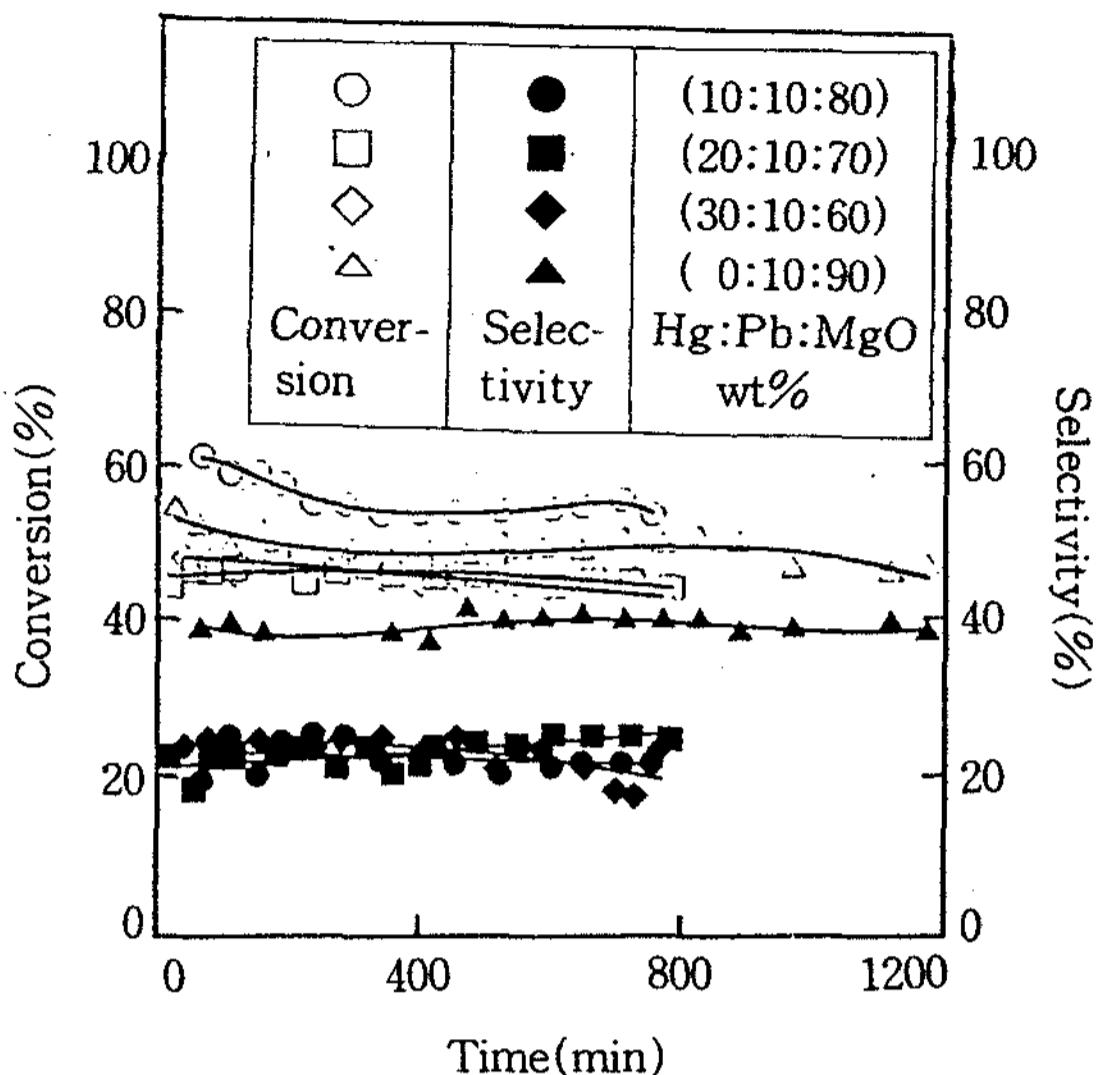


Fig. 8. Conversion and selectivity for catalysts at 750°C : Pb/MgO( $\triangle$ ,  $\blacktriangle$ ), Hg/Pb/MgO( $\square$ ,  $\bigcirc$ ,  $\diamond$ ,  $\blacklozenge$ )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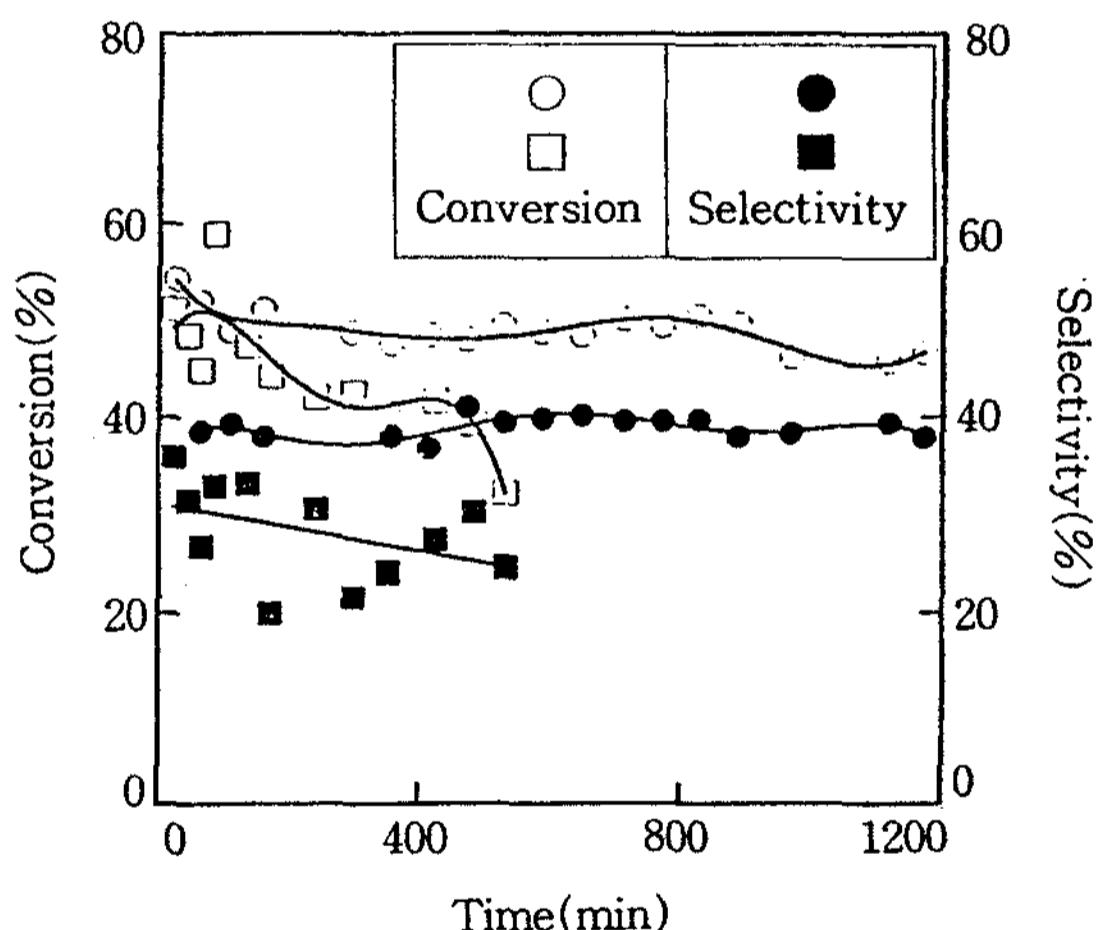


Fig. 9. Conversion and selectivity for various catalysts at 750°C : 10wt%Pb/MgO( $\bigcirc$ ,  $\bullet$ ), 10wt%Pb/10wt%NaCl/MgO( $\square$ ,  $\blacksquare$ ).

미치지 못하였다. 반응 중 chlorine radical이 가스상에서 메탄과 상호 작용하여 에틸렌 선택도를 증가시키는 것은 chlorine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나,<sup>13, 14)</sup> 이에 대해 Burch<sup>15)</sup>는  $CH_3Cl$ 이 에틸렌의 가스상 생성에 사실상 기여하지 않으며, chlorine이 촉매 표면에 새로

운 site를 형성한다고 추측하고 있어 chlorine의 영향에 대해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.

#### IV. 결 론

주요 천연자원의 하나인 천연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메탄을 직접 전환하는 기술인 메탄의 산화성 짹지음 반응으로 고부가 가치의 에틸렌 및 에탄 제조에 관한 연구를 여러 가지 금속촉매들을 이용하여 고정층 반응기에서  $750^{\circ}\text{C}$ ,  $1\text{atm}$ ,  $\text{CH}_4/\text{O}_2 \text{ ratio}=2$ 의 조건으로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.

1. Two oxidation state를 갖는 환원성 금속 산화물 중 Pb, Mn을  $\text{BaO}_2$ ,  $\text{CaO}$ ,  $\text{MgO}$ 에 각각 담지시켜 OCM 반응을 수행한 결과, 여러 담체 중에서  $\text{MgO}$ 를 담체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, Mn보다 Pb를 담지시킨 촉매에서 높은 반응성을 얻을 수 있었다. 또한 본 실험조건 하에서 사용한 촉매 중  $10\text{wt\%Pb/MgO}$  촉매가 메탄의 전환율,  $\text{C}_2$  선택도, 수율이 각각 50%, 40%, 20%로써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.

2. Sulfate 화합물과 carbonate 화합물을 사용한 촉매의 경우 선택도가 각각 20%, 10% 미만으로 염기성 촉매로써 좋은 반응성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OCM 반응에 좋은 촉매가 아님을 알 수 있었다.

3. Carbene( $\text{CH}_2:$ ) 형성에 도움을 주는 수은 화합물과 에틸렌으로의 선택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chlorine을 첨가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, 전환율과 선택도 모두 감소하여 촉매 활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.

#### 문 헌

1. 이재성 : *화학공업과 기술*, 9, 4(1991).
2. 박상언 · 장종산, *촉매*, 7, 1(1991).
3. Lee, J. S. and Oyama, S. T. : *Catal. Rev.-Sci. Eng.*, 30, 2(1988).
4. *Petroleum Economist*, August, (1985).
5. Keller, G. E. and Bhashin, M. M. : *J. Catal.*, 73, 1(1982).
6. Pitchai, R. and Klier, K. : *Catal. Rev.-Sci. Eng.*, 28(1), 13(1986).
7. Ito, T. and Lunsford, J. H. : *Nature*, 314, 721 (1985).
8. Harris, J. M., Wamser, C. C. : "Fundamentals of Organic Reaction Mechanisms", Wiley, 315(1976).
9. Otsuka, K., Jinno, K. and Morikawa, A. : *J. Catal.*, 100, 353(1986).
10. Carreiro, J. and Baerns, M. : *Catal. Lett.*, 35, 309(1987).
11. Tanabe, K. : "Solid Acids and Bases", 1st ed., Academic Press pp. 80~89(1970).
12. Otsuka, K., Jinno, K. and Morikawa, A. : *Chem. Lett.*, 467(1986).
13. Otsuka, K. : *Sekiyu Gakkaishi*, 30, 385(1987).
14. Visborskii, V. P., Baidikova, I. V., Maedov, I. V. E. A. and Rizayev, R. G. : *Catal. Lett.*, 47, 193(1992).
15. Burch, R., Chalker, S. and Loader, P. : *Appl. Catal. A: General*, 82, 77(1992).